

돌아온 끝판대장 “모범적 오승환 보여드리겠다”

북귀 기자회견서 사과문 읊어...“삼성의 새로운 우승 장면 만들고파”



삼성 라이온즈로 복귀한 오승환이 10일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아 경기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오승환은 국내 취재진과 공식 인터뷰를 가진 후 KIA와의 홈경기 5회 말이 끝난 뒤 경기장을 찾은 야구 팬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돌아온 ‘끝판대장’ 오승환(37·삼성 라이온즈)이 북귀 기자회견에서 사과부터 했다. 오승환은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북귀 기자회견에 나서 미리 준비한 사과문부터 읊었다. 오승환은 “삼성 북귀와 동시에 2015년 도박 사건으로 불의를 일으킨 데 대해 7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 일로 인해 저를 아껴주셨던 야구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렸다.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일이 있고 나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했고 정말 많이 반성했다. 해외 활동으로 인해 이제서야 징계를 받게 됐다. 징계 기간에도 많은 반성을 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조금 더 모범적인 오승환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한 뒤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지난달 말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방출된 오승환은 지

난 6일 친정팀 삼성과 연봉 6억원에 2019시즌 연봉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마쳤지만, 오승환은 올 시즌 KBO리그 마운드에 설 수 없다. 오승환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2015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KBO는 2016년 1월 “오승환이 KBO리그로 복귀할 경우 해당 시즌 총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해당 징계가 지난 6일부터 적용돼 오승환은 올 시즌 42경기와 내년 시즌 30경기에 출전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연봉 실수령액은 약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오른쪽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오승환은 징계 기간 동안 재활한다. 6년 만에 대구로 돌아온 오승환은 “일본에서 2년, 미국에서 4년을 보내며 많은 것을 배웠다. 힘든 시기도 있었고, 좋은 성적을 낸 때도 있었다”며 “내가 느끼고 배운 점을 한국 야구에 접목하고 싶다. 후배들과 교감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등 번호 21번을 달고 뛰게 될 오승환은 “해외에 있으면서 우승할 때 기억이 많이 나더라. 내가 마무리 투수였다보니 시즌이 끝나는 장면이 많이 연출됐다. 그 장면이 항상 머리 속에 있다”며 “삼성 우승 장면을 새롭게 만들고 싶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일본, 미국을 겪고 온 소회를 말해달라. “일본 2년, 미국 4년 있었다. 많은 것을 배운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그 와중에 힘든 시기도 있었고, 좋은 성적을 낸 때도, 좋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 많은 것을 배웠다. 제가 느끼고 배운 점을 한국 야구에 접목시키고 싶다. 후배들과 교감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팔꿈치 상태와 수술 일정은. “일단 13일에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는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몸 상태다. 지금 바로 공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술을 하고 재활을 열심히 해서 내년 4월까지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처음이다. 김한수 감독님이 됐

다. 새로운 것이 많은데.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처음인데 시설이 잘 돼 있더라. 시설이 좋다는 것을 가장 많이 느꼈다. 야구장을 보고 흥분됐다. 빨리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앞서더라. 김한수 감독님께 오랜만에 인사말 드렸다. 예전에 선수로 함께 뛰었다. 코치진에도 선수로 같이 뛰었던 분들이 많다.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귀국했을 때 ‘힘이 남았을 때 뛰고 싶다’고 했는데 자신감은 어느 정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수술을 통해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내년에는 정말 말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많이 하겠다. 삼성이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보탬이 되겠다.”

▶국내 팬들은 강속구 투수로 기억하는데 해외 거치며 변화구 비율이 높아졌다. 내년에는 어떻게. “6년 만에 국내에 복귀했고, 한국 타자들 분석도 많이 해야한다. 알지 못하는 타자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변화구 비율에 대해 말하기는 힘들다. 타자의 성향에 맞게끔 던져야 할 것 같다. 전력분석 등을 통해 자료를 받아 공부를 많이 하겠다.”

▶한미일 400세이브 못한 것이 아쉽지는 않나. “아직 선수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은 크게 없다. 앞으로 팀 승리를 위해 세이브를 더 많이 해야한다는 생각뿐이다. 300, 400세이브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라팩 악몽 떨친 KIA 양현종

이전 5경기 선발 1승도 못해...평균자책 10.48 6이닝 1실점 호투로 시즌 13승 수확...팀 연승 “크게 신경쓰지 않으려 했더니 좋은 결과 이어져”



10일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리그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1회말 KIA 선발투수 양현종이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좌완 에이스 양현종(31)이 ‘라팩 악몽’을 완전히 떨쳐냈다. 양현종은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경기에서 6이닝 동안 3피안타(1홈런)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1회말 김현근에 선제 솔로 홈런을 허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깔끔한 투구였다. 삼진 3개를 잡았고, 볼넷은 1개만 허용했다. 최고 시속 150km의 직구에 주무기인 체인지업을 앞세워 삼성 타선을 요리했다. 양현종은 이날 호투로 시즌 13승째(8패)를 수확해 다승 부문 단독 4위를 달렸다. 또 KIA의 4연승도 이끌었다. 의미있는 호투였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의 악몽을 완전히 털어냈다.

양현종은 2016년 개장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만 서면 작아졌다. 이날 경기 전까지 이 구장에서 개인 통산 5경기에 선발 등판했는데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모두 패전의 멍에를 썼다. 평균자책점은 10.48에 달했다. 올해에도 부진은 이어졌다. 지난 4월4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양현종은 2이닝 동안 흠뻑한 방을 포함해 9개의 안타를 얻어 맞고 무려 7점을 내줬다. 양현종은 “연승 분위기에 페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라팩에서 너무 좋지 않아서 연승이 끊어지면 어쩌나 하는 부담도 있었는데 잘 막아서 기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라팩에서 좋지 않았던 이유를 모르겠다. 원인을 좀 알려달라”더니 “이곳이 처음 지어졌을 때 야구장이 참 좋다고 생각했다. 또 우리 팀 홈구장과 비슷해 적응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며 “하지만 나갈 때마다 패전이 되다보니 다음 등판 때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경기가 있으면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고 털어냈다. 이날 호투로 마음의 짐을 덜게 된 양현종은 “오늘만큼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운드에 올랐다. 그런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던진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완봉승 후유증도 없었다’는 말에 양현종은 “지난 경기도 한 경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투구수도 많지 않았다. 제 페이스대로 던지려고 노력했다”며 “지난 경기에 완봉했으니 잘 던져야겠다는 마음보다 연승 기간 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임무만 하고 내려오자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양현종의 투구수는 94개에 불과했다. 7회까지 욕심을 내볼 만했지만, 손도 부어있는데다 중간계투진에 대한 믿음이 있어 홀가분하게 마운드를 내려왔다. 양현종은 “손 부상 때문에 감독님, 코치님이 관리해주신 것 같다. 중간 투수들도 요즘 잘 던져서 믿고 계 운하게 내려왔다”며 미소지었다.

‘제74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순천에서 대장정

14일간 32개팀 경쟁

제74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가 12일부터 전국 32개 대학야구팀 선수와 감독, 임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생체육도시 순천에서 펼쳐진다. 한국대학야구연맹이 주최하는 선수권대회는 올해 74회째로 12일 부터

25일까지 14일간 뜨거운 경쟁을 하게 된다. 12일 오전 9시 인하대와 유원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24일에 결승전이 치러질 예정이며, 오는 26일 개최되는 2020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대회인 만큼 선수들 간 열띤 경기를 통해 프로야구 스카우팅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번 대회를 통해 각 대학 기량이 우수한 선수들은 26일 개최되는 신인드래프트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향후 각 프로구단 선수로 스카우트 되어 프로팀에서 활동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경기일정과 결과는 한국대학야구연맹 홈페이지(www.kub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전라남도

전남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사례 전국 2위

앞으로도 좋은 정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